

#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	<p><b>□ 산업부 1000억 투입 수소생산기지 가동률 50% 대 그쳐(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수소생산기지의 가동률이 50%대에 머무르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 가동률 60%가 넘는 생산기지가 한 곳도 없는 상황으로, 삼척은 50.6%, 최고 수준인 평택·인천도 58.9%에 그침</li> <li>- 2019년부터 시작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950여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18개 기지가 구축됐거나 구축 중이나, 수소차 보급 지연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지자체별 수소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생산·가동 실적이 미흡</li> <li>- 수소차 보급도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2022년 목표 6만7천대 대비 실제 보급은 2만9623대에 그침. 국회는 지자체의 수소 수요 전망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신규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구</li> </ul>
		<p><b>□ 국회수소경제포럼 "예산확보, 법·제도 정비 나설 것"(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수소경제포럼이 한국수소연합 주관으로 수소산업계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 SK이노베이션 E&amp;S,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수소 밸류체인 주요 8개사가 참여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li> <li>- 참석 기업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 산업 전 밸류체인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li> <li>-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연구개발, 투자, 인식 확산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여야를 초월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li> </ul>
		<p><b>□ 한국남부발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남부발전이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서 유일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정부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도입 후 첫 입찰에서의 성과</li> <li>- 남부발전은 전사적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발전·건설 등 분야별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입찰전략을 수립. 청정수소 공급사 확보를 위해 연료단가, 도입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을 핵심 분야로 설정</li> <li>- 최종낙찰자로 선정 시 2028년부터 삼척그린파워 1호기에서 연간 750GWh 규모의 석탄-수소화합물(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개시할 예정. 회사는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과 2030 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중앙	<p>□ <b>환경부 그린수소협회 설립 추진 논란(2024-11-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K-water가 추진 중인 '한국그린수소협회' 설립을 놓고 업계 반발이 확산. 12월 6일 창립총회를 앞둔 그린수소협회는 2026년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한국수소연합과의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li> <li>- 수소업계는 이미 정부-수소업계 대표창구이자 전담기관인 한국수소연합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회 설립이 사업중복과 소통창구 분절, 기관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특히 회비 이중부담 등 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li> <li>- 환경부는 K-water의 수전해 방식 수소생산 관련 업계 소통창구가 필요하며, 수전해 설비업체와 시공업체 위주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무회비 협의체라는 점에서 기존 협회와 차별화된다고 설명</li> </ul>
수소	지방	<p>□ <b>충북도, 수소 모빌리티와 인프라 구축 전략 논의(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가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에서 '제15회 수소산업 산학연관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수소산업 발전방향을 논의.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대자동차, 청주대학교 등 수소 관련 20여 기관이 참여하여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li> <li>- 이번 교류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 모빌리티 현황, 국내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현황을 공유. 안산의 수소 인프라시설 운영센터와 수소시범도시 사례를 통해 충북의 수소 도시 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li> <li>- 충북도는 청주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으로, 2025년까지 일 3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과 버스충전소 완공,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목표로 추진. 지속적인 산학연관 소통 강화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li> </ul>
		<p>□ <b>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박차...경제 성장동력화 시동(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자치도가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방향을 논의.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추진</li> <li>- 현재 전북은 완주수소공급지에서 수소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고,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완주에 개소</li> <li>- 전북자치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과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을 추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p><b>□ 울산 해외사절단, 중국 광저우와 '수소' 경제협력 가동(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김두겸 시장을 단장으로 중국 광저우시를 방문하여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 현대자동차 해외 최초 수소연료전지 공장인 에이치투(HTWO) 광저우 공장을 시찰하고 수소산업 현황을 점검할 예정</li> <li>- 광저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과 현대자동차의 수소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 두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현대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li> <li>- 김두겸 울산시장은 광저우시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을 통해 울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을 강조</li> </ul>
		<p><b>□ 경남도, 소부장 으뜸기업 수소분야 '피케이밸브(주)' 전국 최초 선정(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도 창원시의 피케이밸브엔지니어링이 전국 최초 수소분야 1호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 '극저온 대유량 액체수소용 밸브 제조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li> <li>- 피케이밸브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실증, 세계시장 진출까지 범정부 차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며, 연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기술개발비와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예정</li> <li>- 1946년 창립된 피케이밸브는 원자력 밸브와 초저온밸브, 고온·고압용밸브에 이어 2022년에는 액화수소용 밸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국내 밸브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올해 2월에는 수소전문기업으로도 지정</li> </ul>
		<p><b>□ 창원시 액화수소특위 "액화수소 게이트, 책임 들을 것"(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사업의 핵심기술 국산화 목표가 영리사업으로 변질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출자금 불법 조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li> <li>- 71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조달에 창원시의 담보 제공,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무시한 투자심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필수 시험절차 없는 준공처리 등 다양한 불법·편법 사례를 발견</li> <li>- 총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준공된 플랜트는 연간 1825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갖추었으나, 판매처 미확보, 가동률 저하, 운영비 과다 등으로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는 평가</li> </ul>
		<p><b>□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하는 포항... "글로벌 연료전지산업 선도"(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를 수소특화단지 지정받아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추진. 2028년까지 1,918억원을 투입하여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내 28만240㎡ 부지에 연료전지 평가센터, 수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연료전지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 20개사 육성과 연료전지 부품·소재 100% 국산화가 목표</li> <li>- 포항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수소에너지산업과 신설 등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준비.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앵커기업 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과제로 지적</li> </ul>
		<p><b>□ 완주군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 '신재생에너지 원할 공급' 정책 뒷받침 관련 (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을 주제로 정책소풍을 개최. RE100 등 탈탄소 캠페인 확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외 진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li> <li>-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이 해외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스타트업 인력 채용, 산업단지 분양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li> <li>- 완주군은 국내 최초로 개관한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와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 중. 현대자동차 생산라인과 수소 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성장 잠재력 주목</li> </ul>
		<p><b>□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등 7개 특구 연장...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2024-11-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의 연장 운영을 결정. 세종 자율주행 등 규제가 개선된 4개 특구는 운영이 종료</li> <li>-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를 포함해 경남 5G 스마트공장, 경북 산업융합, 부산 블록체인, 울산 계층서비스, 전북 탄소융복합,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li> <li>- 위원회는 재정지원 특구와 비재정지원특구에 대한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23개 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모두 정상 진행 중임을 확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특구의 본연의 목적 달성과 지속적 성과 창출을 강조</li> </ul>
		<p><b>□ 늦어지는 청라 수소연료전지 공장...인천경제청 "계약 유지"(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계획된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공장은 아직도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점도 지났지만 인천경제청은 계약 유지로 가닥</li> <li>- 당초 산단 내 10만304㎡ 부지에 9227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10만기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인천은 물론 울산 등에 논의됐던 공장 추가 설립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스택의 높은 생산 단가 대비 내구성이 짧아 수익성이 낮다”며 현 시점에서 스택 공장 신설의 어려움을 지적.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인 만큼 합당한 방향으로 추진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li> </ul>
		<p><b>□ 수소 기반시설 확대...산업화 전략은?(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가 수소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충에 주력. 최근 문을 연 충전소는 전북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승용차 400대, 시내버스 130대가 충전 가능하며,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수소 보관 방식을 변경</li> <li>- 현재 전주지역 운영 중이거나 완공 예정인 수소충전소는 총 7곳으로 전국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주에 등록된 수소자동차도 1,100대를 넘어섬</li> <li>- 하지만 수소산업이 교통수단 대체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수소 관련 기업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연관 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 5년 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산업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li> </ul>
		<p><b>□ 이종배 의원, 수소산업계와 정책협력 방안 논의(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간담회를 주재.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로서 수소산업계 주요 기업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li> <li>- 간담회에는 SK이노베이션 E&amp;S,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얼셀, 코하이젠, 현대자동차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주요 기업 8개사가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li> <li>- 국회수소경제포럼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오는 유일한 수소 관련 연구단체로,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달성</li> </ul>
<p><b>□ "이차전지·수소·로봇 메카로"...'제1회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 성료(2024-11-2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와 포스코그룹이 '제1회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개최. 한국엔젤투자협회와 미라클클럽이 주관하고 이차전지·수소·로봇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사, 대·중견기업, 지자체 간 만남의 장 마련</li> <li>- 현장에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들과 현대건설, 호반건설의 상담기업 부스 11개, 포스코기술투자 등 9개 투자사 상담부스, 이차전지·수소·로봇분야 전시 부스 10개 등이 설치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이루어짐</li> <li>- 광양시는 이차전지·수소·로봇을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광양벤처밸리' 조성을 추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p>□ <b>파주시, '파프리카' 북부권 운행 시작... 친환경 수소버스로 학생 통학 환경 개선(2024-11-2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시가 전국 최초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운행 지역을 금촌동, 문산읍, 파주읍 등 북부권역으로 확대. 3월 운정신도시에서 시작된 파프리카는 11만 9천여 명의 누적 이용자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음</li> <li>- 북부권역 파프리카는 3개 노선에 총 7대의 친환경 수소버스를 투입. G노선은 운정-금촌-문산제일고등학교를, M노선은 당동리와 금촌에서 세경고등학교, 문산수익고등학교, 선유중학교를 연결</li> <li>- 파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수소버스 도입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 파프리카는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도 기여</li> </ul>
UAM	중앙	<p>□ <b>안전성 확보한 UAM 도심 내 실증비행 가능해진다(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가 UAM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 비도심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UAM은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해지고, 외국 등록 항공기의 국내 중복 등록도 허용</li> <li>-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할 계획</li> <li>- 실증사업구역으로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아래뻘길 구간을 우선 지정하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확대할 예정</li> </ul>
	지방	<p>□ <b>아래뻘길 등 수도권 유일 UAM 실증사업구역 지정(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아래뻘길과 드론인증센터~계양신도시 부근이 수도권 유일의 UAM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은 공역, 전파·환경, 부지, 기반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 12월까지 실증 진행 예정</li> <li>- 도심형항공기 기준으로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승객 좌석 9석 이하, 양력 발생장치 3개 이상 등의 물리·형태적 요건을 규정.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정</li> <li>- 실증 지원을 위해 기체등록 규제완화, 도심 실증비행 허용, 안전보고 체계마련 등의 규제특례도 확정.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술 검증을 지원할 계획</li> </ul>
우주	중앙	<p>□ <b>[우주산업 육성 위해 '용어 등 표준화 작업' 착수]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21일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회의를 개최. 우주산업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협력할 계획</li> <li>-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 운영하기로 함. 우주산업 용어표준, 부품 시험방법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및 제품보증 절차 표준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은 2025년 상반기 정식 출범 예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도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실무 작업반으로 참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주청 등과 협력해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방침</li> </ul>
	지방	<p><b>□ [기획]초소형 위성 개발부터 발사체 지원까지... 대전 우주도시 진입 박차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가 지역 우주기업들의 자체 역량으로 초소형 위성개발에 이어 소형 발사체 기술 확보에 나서는 등 우주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 우주발사체 운용 능력 검증 지원사업을 통해 발사체 추진체계 검증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성능 시험 등을 추진</li> <li>- 초소형 위성의 발사 수요 증가에 따라 발사 서비스 확보가 필요한 상황. 대전은 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로,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중</li> <li>- 대전시는 2026년 초소형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는 '대전SAT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다음 목표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이를 통해 초소형 위성 발사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의 발사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li> </ul>
		<p><b>□ 경남 민선 8기, 우주항공, 방산, 원전, 조선해양 등 산업 전반 가시적 성과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삼아 우주항공, 방산, 원전, 조선해양 등 산업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우주항공청 개청, 원전·방산·조선해양 주력산업 활력 회복 등이 주요 성과</li> <li>-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41개 사업, 6,090억원 규모로 선정되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국 최초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에 2개 특구가 동시 선정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됨</li> <li>- 경남도는 제도개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업계 건의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도 힘씀. 향후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청년 선호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li> </ul> <p><b>□ 우주청 품은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시동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 중.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사천공항의 여객·화물 수요 증가가 예상</li> <li>- 사천공항의 국제선 유치로 통해 남해안 관광 활성화도 기대.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관광객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li> <li>- 경남도는 2026~2030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항 부지 확장, 여객·화물터미널 신축, 국제공항 전환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천공항을 서부경남 항공산업 활성화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계획</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	<p>□ <b>유성구, '로켓박사' 채연석과 함께하는 우주과학 토크쇼 개최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유성구는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30일 유성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주과학 토크쇼를 개최. '로켓박사' 채연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연사로 나섬</li> <li>- 특강 주제는 '우주로 가자! 또 다른 지구를 찾아서!'로, 조선시대 신기전부터 현대 누리호까지 한국 우주과학의 발전사를 소개.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li> <li>-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청소년들에게 한국 항공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li> </ul>
		<p>□ <b>국회서 '경남 항공우주산업 진흥 어떻게할까?' 고민 나뉘 (2024-11-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추진 전략 및 로드맵 구축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림. 박대출 국회의원과 한국과총 경남지역연합회가 주관</li> <li>- 세미나에서는 김해동 경상국립대 교수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 이창진 전 건국대 교수, 정의석 한국로스트웍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li> <li>- 박대출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가 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술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됨</li> </ul>
		<p>□ <b>['사천우주항공복합도시' 해법 찾는다] (2024-11-2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천시는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 심포지엄'을 12월 5일 개최 예정.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사천의 발전을 견인할 '사천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전략을 모색</li> <li>- 심포지엄에서는 류재영 전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 박태원 광운대 교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방안'을 발표</li> <li>- 사천시는 용현면 일원 5.6km<sup>2</sup> 부지에 주거·산업·교육·연구개발 등이 어우러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li> </ul>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p>□ <b>에너지연, 신개념 촉매 개발... '친환경 청록수소' 상용화 앞당긴다(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이 청록수소 상용화를 앞당길 신개념 니켈-코발트 합성 촉매를 개발. 기존 촉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li> <li>- 개발된 촉매는 600도 저온 환경에서도 기존 대비 초기 30분 활성 기준 50% 이상 높은 수소 생산성을 보이고, 활성 유지 시간도 90분에서 150분으로 60% 연장. 반응 후에는 이차전지 전극 소재로 활용 가능한 탄소나노튜브가 생성되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li> <li>-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수소 생산과 탄소나노튜브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획기적 결과라고 평가. 향후 양산 기술 연구와 성능 평가를 통해 핵심 소재 기술과 반응 시스템 설계 기술을 확보할 계획</li> </ul>
		<p>□ <b>AI가 그린수소와 배터리 신소재 찾아낸다(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AIST 연구팀이 AI와 계산과학을 결합해 그린수소와 배터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스피넬 산화물 신소재 설계 기술을 개발. 성능과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개발하여 효율적인 신소재 발굴이 가능</li> <li>- 연구팀은 AI와 계산과학을 동시에 활용하여 1240개의 스피넬 산화물 후보 물질을 선별하고, 기존 촉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물질들을 발견. 특히 3차원 확산 경로 발견을 통해 촉매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70배 이상 향상</li> <li>-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실험 방식 대비 신소재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그린수소와 배터리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p>□ <b>한수원, 제1차 청정수소 생산 실무교육 시행(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전 수소전주기연구센터에서 국내 주요 EPC 기업을 대상으로 '제1차 청정수소 생산 실무교육'을 시행.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소 사업과 기술개발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전해 플랜트 설계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li> <li>- 교육이 진행된 수소전주기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2년간 한수원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최근 구축된 국내 최초의 수소 전주기 연구시설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모사해 수소 생산·저장·활용 분야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li> <li>- 한수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내 청정수소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li> </ul>
		<p>□ <b>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 그린수소 상용화 박차...탄소중립 실현에 노력(2024-11-2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제주 해상에 그린수소 실증플랜트를 설치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그린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 해양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W급 풍력발전 단지와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수소 생산·저장 플랜트를 개발 중. 지난해 한국선급의 AIP 인증과 영국 로이드선급의 구조설계 기본승인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음</li> <li>- KRISO는 2027년까지 해양 에너지와 그린수소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 해양은 육상보다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한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 확보에 주력</li> </ul> <p><b>□ 액체수소 바로 뽑아쓴다...추출속도 16배↑ (2024-11-2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전기로 촉매를 직접 가열하는 '전자기 유도 촉매 가열 시스템(ECIHS)'을 개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해 촉매 반응속도와 수소 추출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기술</li> <li>- 특수소재인 티타늄 실리콘 카바이드를 벌집 모양으로 만들고 백금과 황을 첨가해 열 전달 효율이 높은 촉매를 구현. LOHC가 300℃까지 가열되는 시간이 기존 742초에서 52초로 단축되어 16.4배 빠른 수소 추출이 가능</li> <li>- 에너지 투입 대비 수소 추출 효율도 기존 40%에서 80% 이상으로 2배 이상 향상. 연구 성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줄'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li> </ul>
	지방기관	- (해당 없음)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p><b>□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무인전투기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주최하는 'AI PILOT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li> <li>- 토론회는 AI 무인전투기 개발 현황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과 KAI AI/SW실장이 기조발제를 맡음.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li> <li>- 서천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AI 기반 무인 비행체가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AI 무인기 기술개발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li> </ul>
		<p><b>□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수자원공사, 위성 수출·서비스 시장 진출]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성 수출과 위성 서비스 시장에 진출. 위성시스템 설계 최적화 개발, 위성 활용플랫폼 상용화, 항공기-위성 연계패키지 수출 등을 추진</li> <li>- KAI는 위성 제작에서 발사까지 개발 전과정을 담당하고, K-water는 수자원 위성 운영을 위한 위성 분석 기술과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양사의 협력으로 위성 개발·운영 기술 발전과 위성 수출, 우주서비스 시장 진출 등 우주경제 실현이 기대됨</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구영 KAI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위성 분야 국내 활용 확대 및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하여 민간주도 우주경제 실현 가속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힘</li> </ul>
		<p><b>□ 방사청·서울대 '제10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국방우주 주제...발전 방향 논의" (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청과 서울대가 글로벌 우주경제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국방우주 정책·기술을 주제로 '제10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 군과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관련 업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li> <li>- 포럼에서는 우주시대 대응을 위한 국방우주 분야 정책 방향, 우주무기 체계 획득 및 국방우주 산업 육성 방안, 차세대 우주기술 등을 논의</li> <li>-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우주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국방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국방우주 정책 다변화로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할겠다”고 강조</li> </ul>
		<p><b>□ KAI, 상생업체 지원 확대..."항공우주산업 선순환 구축" (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상생업체 총회를 열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짐. 상생업체 지원 정책 발표, 정기평가 우수업체 시상을 진행</li> <li>- KAI는 B737 사업 증산 등 글로벌 민항기 시장 회복세에 맞춰 상생업체들에 안정적 물량 공급을 약속.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약 3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li> <li>- 강구영 KAI 사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 등 재도약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KAI의 성장이 상생업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li> </ul>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 민간 및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p>□ <b>플랜텍-그라포체, 청록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 참여 업무협약 체결(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랜텍이 독일의 플라즈마 분해 기술 전문기업 그라포체와 청록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국내 청록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li> <li>- 그라포체는 전력 소비를 기존 수전해 수소 생산 대비 8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시간당 200kg의 천연가스에서 50kg의 수소와 150kg의 고체탄소를 생산하는 메탄 전기분해 실증 플랜트를 운영</li> <li>- 청록수소는 메탄 열분해 방식으로 수소와 고체탄소를 얻는 기술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청정수소 생산방식으로 주목. 플랜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li> </ul>
		<p>□ <b>현대차, '이니시움' 북미 최초 공개.. "내년 美서 양산 수소전기차 출시"(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자동차가 LA 오토쇼에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북미 시장에 최초로 공개. 내년 상반기 출시될 양산형 수소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성과 기술을 담은 콘셉트 모델로, 내년 북미 시장에서 양산 모델 출시 계획</li> <li>- 이니시움은 650km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 여유로운 실내 공간, 수소전기차 전용 편의사양을 갖춰 개발. 특히 목적지까지 수소 충전소를 경유하는 최적 루트를 안내하는 '루트 플래너' 기능을 탑재</li> <li>- 차량 디자인에는 '아트 오브 스틸' 컨셉을 반영하여 스틸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으며, 램프 디자인에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 'HTWO'의 심볼을 형상화하여 수소전기차만의 아이덴티티를 부각</li> </ul>
		<p>□ <b>신형 전기차·수소콘셉트카...전동화 신차로 美파고 넘는 현대차·기아 (2024-11-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와 기아가 LA 오토쇼에서 전기차 신모델을 공개하며 미국 시장 공략 강화. 현대차는 아이오닉9과 수소전기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기아는 고성능 전기차 EV9 GT를 선보임</li> <li>- 아이오닉9은 전용 플랫폼 적용한 세 번째 전기차로 북미 소비자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 내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견고한 전기차 수요를 겨냥</li> <li>-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139만여 대를 판매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누적 판매량이 2,874만대에 달하며, 내년에는 3,000만대 돌파가 예상됨</li> </ul>
		<p>□ <b>한일'서울회동' 정의선·도요다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할 것"(2024-11-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열린 WRC 현장에서 재회. 두 회장은 지난달 용인 회동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수소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요다 회장은 “현대차와의 활발한 교류는 한일 양국과 자동차 업계에도 매우 좋은 일”이라며 수소인프라 협력 강화를 강조. 양사는 최근 AI 활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을 선언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li> <li>- 업계는 두 회사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수소 분야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특히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는 어느 한 회사가 구축하기 어려워 공동 투자가 예상</li> </ul> <p><b>□ SK플러그하이버스, '원주 장양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2024-11-2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특별자치도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원주 장양 액화수소충전소'가 SK플러그하이버스의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 2022년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2억 원과 민간자본 33억 원 등 총 75억 원을 투자해 건립</li> <li>-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하루에 수소 버스 약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하고 15일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li> <li>- 기존 원주의 기체수소 충전기 2기에 더해 액화수소 충전기 2기가 추가되어 수소 승용차(600대)와 수소 버스(13대)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과 운송이 효율적이어서 차세대 운송수단의 주요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li> </ul>
	대학교	<p><b>□ 동아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 지정(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대 고기능성밸브 기술지원센터가 국내 대학 최초로 수소밸브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이어 세 번째 공인 시험기관이 되어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li>- 'L2M(Lab to Market) 플랫폼'을 완공하여 수소밸브 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 전국 밸브업체의 약 40%가 부산 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해외까지 가야했던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됨</li> <li>- 동아대는 L2M 플랫폼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간 각각 10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됨. 또한 수소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반도체 등을 연구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을 출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li> </ul> <p><b>□ "커피성분 활용 성능·내구성↑" DGIST, 태양광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2024-11-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IST 에너지공학과 박치영 교수팀이 탄닌산 기반 초분자 형광 나노 복합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태양광 유기 및 바이오 수소 생산 시스템 구축에 성공. 경북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친환경 소재인 탄닌산의 우수한 나노표면 흡착 특성을 활용</li> <li>- 기존 형광 염료인 로다민을 자연계 엽록소처럼 양친매성 구조로 변형하고 금속-폴리페놀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 그 결과 태양광 가시광선 환경에서 촉매 1g당 시간당 약 18.4mmol의 수소를 생산하는 성능을 달성</li> <li>- 이 시스템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연속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앙케반테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기능성 미생물과 신소재를 결합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예정</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data-bbox="384 322 1481 405">□ <b>수소연합,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수소경제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24-11-21)</b></p> <ul data-bbox="405 432 1481 824"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소연합이 스페이스퀘어 삼성역센터에서 '트럼프 2.0 시대-글로벌 수소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 지자체, 기업, 유관기관 등 80여명의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li> <li>- 미국수소협회 프랑크 윌락 회장은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일부 폐지와 초당적 인프라법(BIL)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전망.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수소 관심이 더 많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li> <li>- 김재홍 수석협회 회장은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미국 수소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협력방안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정책 방향 예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li> </ul> <p data-bbox="384 853 1481 891">□ <b>수소항공드론 분야에서 '퍼스트무버'로 날아오른 패리티(2024-11-22)</b></p> <ul data-bbox="405 913 1481 1305"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설립된 패리티가 액체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 최근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60억 원의 신규투자를 받아 누적 130억 원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성장세를 입증</li> <li>- 패리티는 업계 최초로 5시간 비행 가능 멀티콥터, 13시간 연속 비행 가능 수직 이착륙기, 25시간 장기 비행 가능 고정익 무인기 등을 개발. 배터리 드론 대비 10배 정도의 비행시간 증가로 군사, 공공,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li> <li>-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액화수소 기관차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며,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도 선정. 향후 항공, 육상, 해상 분야 액체수소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 계획</li> </ul> <p data-bbox="384 1335 1481 1417">□ <b>민간기업 없는 '반쪽 출범' 청정수소 발전 시장..."제도개선 절실" (2024-11-24)</b></p> <ul data-bbox="405 1440 1481 1877"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민간 기업의 부재 속에 한국남부발전 한 곳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반쪽 출범'하는 결과를 초래. SK이노베이션 E&amp;S를 비롯한 여러 발전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남부발전만이 2028년부터 삼척그린파워 1호기에서 연간 750GWh 규모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시작할 예정</li> <li>- SK E&amp;S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의 저탄소 LNG를 활용한 블루수소 발전 계획이 연기되었으며, 한화임팩트는 수소 혼소율 60% 발전 실증과 100% 수소 전소 실증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입찰 불참을 선택</li> <li>- 전력당국의 발전단가 '비공개 상한선'과 15년 장기 계약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 업계는 수소 연료의 높은 도입가와 발전소 가동률 보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입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li> </ul>
	민간기업	<p data-bbox="384 1912 1481 1951">□ <b>한국형 UAM, 1단계 통과 전무... 주축 SKT는 사업 중단 검토(2024-11-21)</b></p> <ul data-bbox="405 1973 1481 2136"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사업이 첫 실증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이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통과한 컨소시엄이 11월까지 전무한 상황</li> <li>- 가장 적극적이었던 SKT·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도 위기에 직면.</li> </ul>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UAM	민간기업	<p>SKT가 비용 부담과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12월 1단계 실증 후 사업 잠정 중단을 검토 중이며, 다른 컨소시엄들도 기체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p> <p>-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 비용 부담, 사업 불확실성, 기체 수급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 당초 2025~2029년 초기 상용화, 2030년 본격 상용화 목표는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p>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우주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p><b>□ 경상국립대학교, '우주농업연구센터' 설립 (2024-11-21)</b></p> <p>-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과 농업생명과학을 융합한 '우주농업연구센터'를 설립</p> <p>- 연구분야는 인공위성 기반 농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식물공장 기반 우주환경 작물생산 최적화, 극한환경 적응형 고기능성 작물 육성, 우주농식품 개발 등</p> <p>- 우주농업연구센터는 우주식량자원부, 우주스마트농업부, 우주농식품개발부, 우주농업기반부, 우주농생명과학부로 조직. 심상인 센터장은 우주항공청, 경남 산학연관과 연계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p> <p>- 경상국립대는 지난 19일 우주농업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우주산업에서 우주농업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경상국립대는 우주산업과 농생명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p>
	해외	<p><b>□ 스페이스X 우주선 6차 시험비행 성공...트럼프 참관 (2024-11-21)</b></p> <p>-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6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발사 후 약 3분 만에 1단 부스터가 분리되었고, 2단 우주선은 약 65분간 계획된 비행에 성공한 뒤 착수</p> <p>- 이번 비행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의 고온을 보호하는 새로운 재료를 적용하고, 스타십의 마지막 낙하 각도를 조금 더 가파르게 조정. 발사 시간도 육안으로 잘 보이도록 한낮으로 변경</p> <p>- 이날 발사 현장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머스크의 설명을 들었음. 스타십은 길이 50m, 직경 9m로 150t까지 적재 가능하며, 슈퍼헤비 로켓과 합체하면 총길이는 121m</p>
기타	<p><b>□ 민간 우주 산업에 돈 쏟아붓는 해외...韓은 펀드마저 삭감 위기 (2024-11-21)</b></p> <p>-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민간 우주 기업 육성에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음. 반면 한국은 민간 우주 개발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적고, 내년 출자 금액은 삭감될 위기</p> <p>- 한국 정부는 민간우주개발 투자 지원을 위해 매년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나, 내년 기금 예산은 35억원으로 삭감 편성.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 존재</p> <p>- 전문가들은 우주 연구개발을 정부 산하 연구소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해야</p>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기타	<p>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금 등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주요국들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민간 우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p>
		<p><b>□ 위성도 수리해 재사용하는 시대로 . . . 우주청도 혁신성 인정한 이 기업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우주시대 도래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증하면서, 수명이 다한 위성을 우주에서 수리·재사용하는 '궤도상 서비스'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국내 스타트업 위커린스페이스가 이 분야에 도전</li> <li>- 위커린스페이스는 로봇위성을 이용해 정지궤도 위성의 임무 궤도 유지, 연료 재공급,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2028년 시제 로봇위성 발사를 통해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하고, 2030년 상업 서비스 개시 예정</li> <li>- 한국의 위성 운용 경험, AI·로봇 기술 등에 강점이 있어 궤도상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위커린스페이스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li> </ul>
		<p><b>□ 그로스리서치 "민간 우주산업 성장 시 에이치브이엠 등 수혜 전망" (2024-11-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로스리서치는 트럼프의 재선과 머스크의 지원이 민간 우주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우주 상업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재선 시 이런 기조가 이어질 전망</li> <li>- 한국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 확장에 동참 중. 단기적으로 발사체 및 부품 공급 밸류체인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위성 시장과 응용 서비스 산업 성장이 기대</li> <li>- 그로스리서치는 에이치브이엠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를 민간 우주산업 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선정. 에이치브이엠은 스페이스X에 첨단급속을 공급 중이며,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NASA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li> </ul>
<p><b>□ 우주위성 60% 가진 '통제불능' 세계 최고 부자...메르켈 "큰 우려" (2024-11-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하면서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머스크는 전 세계 위성의 6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짐</li> <li>-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머스크의 정부 참여에 대해 “정치적으로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 머스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150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이해상충 문제도 제기</li> <li>-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머스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머스크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li> </ul>		

-끝-